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土)	4(日)
흐린후 맑음 8 / 17℃	흐리저비 9 / 16℃

News

- 무안 '연맥주' 아시아요 ②
- 예비군훈련 '실전'같이 ④
- 위창수, PGA 1R 선두 ⑩

Jeollado

- 그 사람 - 신순범 前의원 ⑦



Entertainment

- 주몽이후... 드라마 삼국지 ⑧
- 영화, 일제시대를 말한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올무 ⑬



우림대학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www.kwangju.ac.kr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동북공정(東北工程)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즉, 만주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 연구 프로젝트(공정).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 사지연구중심'이 주관이 돼 2002년~2006년까지 5년 동안 3조원이 투입됐으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왔다.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는 교사 모임' 회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며 중국의 동북공정 실태와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효진, 임광호, 하유정, 김영주, 이유미씨. /위직경기자 jvwi@kwangju.co.kr

“동북공정 알아야 막는다”

광주지역 교사들 저지 모임...“북한땅 삼키려는 中 야욕”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자체 통치력을 잃을 경우 동북공정을 통해 미화시킨 역사적 허구를 내세워 '중국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동북공정은 한마디로 북한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는 교사 모임”(가칭)을 주도하고 있는 임광호(44·광주자연과학고 역사 담당) 교사는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도 우리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는 교사 모임”은 동북공정의 실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물론 그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8월 결성된 자생적 조직. 이 모임에는 임교사를 비롯 하유정(31·첨단고 도덕), 양홍래(31·은혜학교 사회), 주효진(30·자연과학고 사회), 이유미(29·자연과학고 미술), 김영주(28·하남중 역사) 교사 등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의 리더인 임교사는 동북공정에 맞서 전국 조직으로 결성된 동북아평화연대의 광주·전남 1호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4년 연강재단 주관의 고구려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 3성지역 답사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동북공정의 실태를 확인했다. 임씨는 2005년 8월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 동북 3성 연수 일정을 총괄했고 지난해 8월에는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을 모아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중국 훈춘 등을 도는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하유정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벗어나 고구려와 발해까지 관심을 보이는 동북아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효진 교사는 “교사가 직접 느껴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아봤는데 민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교사 등은 “중국이 동북 3성에 대한 자신

들의 역사적 주장의 근거를 만드는 한편 북한에도 손길을 뻗이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사는 또 “동북공정에 대해 대부분이 정치논리로 대처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사람이 있다”며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 즉 조선족과 고려인을 이해하고 교류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조선족 학생 해외 후원사업에 동참, 매달 2만원 정도를 동북아 평화연대에 납부하고 있다. 이 돈이 곧 중학생까지 한 달 학비가 해결된다. 또 이들은 사비로 상에서 중국 연길의 조선족 학교와 ‘학급대 학급 자매결연’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답사 프로그램 및 동북아 청소년 평화캠프도 구상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亞전당 지하설계 문광부 지침 의혹

류재한 교수 주장...“직원 아이디어 당선작에 반영”

아시아 문화전당의 지하 설계와 관련, 문화관광부 몇몇 인사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가 당선작의 설계에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 문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안이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는 4월30일인 종합계획 확정 시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 교수도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종합계획 확정 연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조광항·이명자·송재선 광주시의원도 “확정시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설계 포기로 인한 300억원 손실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현 전남대 교수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그 전당 안에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류 교수는 “오늘에서야 (전당 지하 설계를) 짜놓고 그대로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

남북, 경험위 내달 18일 개최 상반기 정의선 열차 시험운행

차기 장관급회담 5월29일

남북은 2일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는데 따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상반기 내에 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 식량 차관 등이 의제가 될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4월 18~21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8차 적십자회담을 같은 달 10~12일 금강산에서 열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있게 된 사람들’(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20차 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공동보도문에는 쌀 차관이나 비료지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된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또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행사를 5월초 금강산에서 실시키로 합의했다.

제21차 장관급회담은 5월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연철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어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력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력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